

생각의 기술
논술의 기술 ②

| 옮긴이 박진환 |

서울대학교에서 윤리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경상대 사범대학에서 23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 몽클레어 대학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매튜 립먼 교수의 지도를 받았고, 그 후 2년간 도덕적 판단교육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한국 철학교육 아카데미’의 총무를 맡아 고차적 사고력 교육에 관한 교사 연수를 10년간 해왔으며, 현재 한국윤리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다. 사고력 관련 저서로는 ‘열려라 생각 주머니 4~6학년 교재 및 지도서’(양산 교육청 및 경남 교육청)를 감수했고, 초·중등 도덕 교과서를 집필했다. 또한 미국 몽클레어 대학의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가 출판한 ‘사고력 교육 시리즈’(철학교육 아카데미 출판부) 번역에 참여하고 립먼 교수의 사고력 교육 이론서인 ‘고차적 사고력 교육’(인간사랑)을 번역 출간했으며 ‘생각 없는 일기, 백날 써봐도 소용없다’라는 책을 집필하는 등 고차적 사고력 교육의 확산에 애쓰고 있다.

| 옮긴이 김혜숙 |

서울교대를 나와 초등학교에서 20여 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왔으며 어린이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에 고차적 사고력 교육을 적용하기 위해 10여 년간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립먼 교수의 사고력 교육 이론서인 ‘고차적 사고력 교육’(인간사랑)을 번역 출간했으며 현재 경상대에서 윤리교육 박사과정을 이수중이다

The Thinker's Guides series
by Richard Paul and Linda Elder

©2006 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

The copyright for any and all editions of the Thinker's Guides in the Thinker's Guides series is held exclusively by the 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

Korean language edition published by HOTECH(Higher-Order Thinking Education Center).

Permission to reprint any and all pages in this document is allowed only through authorization by the authors, Richard Paul or Linda Elder, 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과의 독점 계약으로 HOTECH(고차적 사고력 교육센터)이 소유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생각속의 기술 본술의 기술 ②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가
| How to Read a paragraph and beyond |

| 역자 서문 |

현재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흘러넘치고 다양한 가치가 뒤섞여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런 사회 속에서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현명하게 선택할 줄 아는 능력’, ‘합당하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그 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사고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생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 계발의 강조, 학교에서의 사고력 교육 강조, 대학입시에서의 논술 강조는 모두 이러한 해법을 향한 노력이다.

세계 학계에서도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바탕이 되는 주된 이론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주축을 이루는데 두 접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에니스(Robert Ennis), 립맨(Mattew Lipman)과 같은 철학자는 주로 논리학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반면 퍼킨스(D. N. Perkins), 스텐버그(Robert J. Sternberg)와 같은 심리학자는 인지심리학의 지능개념에 바탕을 두고 접근한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은 두 가지 접근을 두루 연구하여 두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살려 조화시키는 데 주력한 학자이면서 교육 실천가다. 특히 생각이나 학습에 기초가 되는 읽기와 쓰기에 독자적인 방법론을 구축하고 있다.

리처드 폴 박사가 주축이 되어 30여 년간 이끌어온 ‘비판적 사고 재단(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은 미국 공인 우수 연구소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전 세계 비판적 사고력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 시리즈는 비판적 사고 재단의 ‘The Thinker’s Guide Series’를 번역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와 같은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익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시리즈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독자에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첫째,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적절히 판단함으로써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잘 해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생각의 기본 구조와 학습의 근본을 이해함으로써 좀 더 공부를 잘 하고 싶은 학생과 학생을 좀 더 잘 가르치고 싶은 교사에게도 훌륭한 지침이 될 것이다.

셋째, 생각, 학습, 읽기, 쓰기의 상호관련성을 보여줌으로써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논술에 대해 그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국내 논술 관련 책자들을 보면, 지나치게 어려워 학생과 교사들이 흥미를 잃게 하거나 지나치게 쉽게 접근하려고 하다가 본질을 왜곡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 시리즈는 논술과 학습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를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며, 국내에서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2편인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가’**에서는 1편에서 다루었던 분석적 사고를 읽기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분석적 사고를 기반으로 어떻게 해야 글을 제대로 읽는 것인지를 알려주며 사례들을 통하여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편에서 다루고 있는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가’**와 함께 보면 분석적으로 글을 읽고, 생각하고, 쓰는 방법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는 논술의 본질이다. 이 책이 국내 많은 학생, 교사 그리고 일반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6년 3월 역자

|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가 |



| 역사서문 |

제1부 이론

- 이 책의 전제 · 10
- 목적을 가지고 읽어라 · 10
- 글쓴이의 목적을 고려하라 · 12
- ‘지식 지도’를 이해하라 · 13
 - 학생을 위한 ‘지식 지도’ · 15
 - 교사를 위한 ‘지식 지도’ · 16
- 즉흥적 읽기는 피하라 · 16
- 반성적 읽기를 하라 · 17
- 읽으면서 읽는 것에 대해 생각하라 · 17
- 내용을 파악하며 읽어라 · 18
- 책은 교사다 · 18
- 글쓴이의 생각을 읽어라 · 19
- 제대로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 21
- ‘제대로 읽기’의 5 단계 · 22
- 구조적 읽기 · 25
- 문장을 읽는 방법 · 25
- 문단을 읽는 방법 · 26
- 교재를 읽는 방법 · 27
- 신문을 읽는 방법 · 29
- 사설을 읽는 방법 · 30
- 읽은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 31
- 학습을 위한 읽기 · 34

생각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읽기 · 34

학문을 이해하기 위한 읽기 · 35

‘제대로 읽기’의 기술 · 35

제2부 실제

‘제대로 읽기’ 연습 · 38

「독립선언문」 · 38

「시민 불복종」 · 49

「시민 불복종(두번째 발췌문)」 · 54

「19세기 미국인」 · 59

「사랑의 기술」 · 65

「옥수수 빵 여론」 · 74

「대중의 반란」 · 78

「진정한 신자」 · 82

「교육의 개념」 · 86

부록

A 문장 바꿔 쓰기의 보기 · 92

B 사설의 논리를 분석하기 · 93

C 교재의 논리 · 95

D 생태학의 논리 · 96

요약 · 100



제1부 이론

🌿 이 책의 전제

문단을 잘 읽을 수 있다면 단원도 잘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단원은 문단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단원을 잘 읽을 수 있다면 책도 잘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책이란 단원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 목적을 가지고 읽어라

글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독자는 글을 읽을 때 맹목적으로 읽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읽는다. 그들은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읽는다. 글의 종류에 따라 읽는 방법도 다르다.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도 읽는 방법을 달리한다. 물론 읽기에는 일반적인 목표가 있다. 그 목표는 글쓴이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낱말을 의미로 바꾸는 것, 즉 번역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낱말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글쓴이가 그 낱말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의미를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번역해야 한다.

글쓰기가 의도한 의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분석적이고 평가적이며 창조적인 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번역을 제대로 하는 독자는 별로 없다. 물론 몇 사람은 글쓰기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글쓰기의 의도와는 다른 자신의 의미를 책 속에 투사한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글쓰기가 의도한 원래의 뜻을 왜곡한다. 호레이스 만(Horace Mann)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나는 제대로 읽는 법을 배우는 데 너무나 힘이 들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읽기란 생각이나 감정을 훈련하는 일과 얼마나 동떨어진 일인가? 또한 학교위원회의 활동은 이 일과 얼마나 동떨어진 무의미한 것인가? 시 교육위원회가 만든 보고서에 의하면 아이들 중 92% 이상이 자기가 읽고 있는 낱말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 때문에 글쓰기가 독자들에게 주고자했던 흥미로운 감정이나 생각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교육부의 2차 보고서, 1838)

일반적으로 우리는 글쓰기의 의도를 알기 위해 읽는다. 글을 읽는 방법은 글의 특성이나 읽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순수한 쾌락이나 개인적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면 글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책이 주는 자극적인 생각을 즐길 수도 있다. 글을 깊게 이해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런 방법도 무방하다.

읽기의 목적은 다양하다.

1. 단순히 즐기려 할 때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2. 단순히 아이디어를 찾고 싶을 때는 글을 훑어보는 것이 좋다.
3. 구체적인 기술적 정보를 얻으려 할 때는 좀 더 자세히 읽는 기술이 필요하다.
4. 새로운 세계관을 접하고, 이해하며, 평가하고자 할 때는 생각을 확장시키기 위한 '제대로 읽기' 기술이 필요하다.
5.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는 의미의 체계를 내면화하고 숙지하는 '제대로 읽기' 기술이 필요하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제대로 읽을 줄 아는 독자는 교재를 읽을 때와 신문기사를 읽을 때에 다른 사고방식을 적용한다. 나아가 생물학 관련 글을 읽을 때와 역사 관련 글을 읽을 때에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

글을 읽는 의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글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지적인 도구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책의 초점은 바로 이 도구와 기술의 안내에 있다.

글쓴이의 목적을 고려하라

책을 읽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뿐 아니라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목적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 둘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다음에 제시한 여러 가지 목적을 살펴보고 각각의 목적에 따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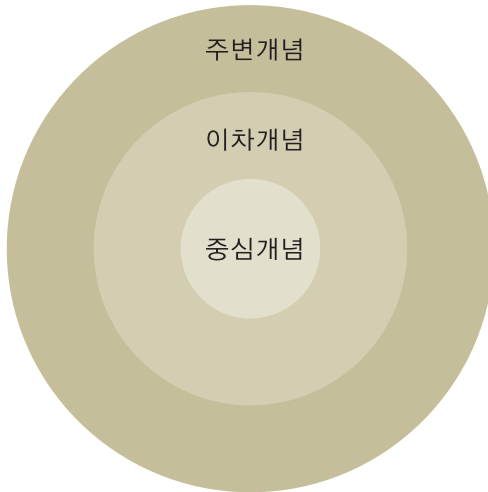
- 정치선전 문구를 만들어내는 정치가나 그들의 홍보 고문
- 독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흥미 있어 할지, 그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신문 편집자
- 광고 문구를 작성하는 카피라이터
- 실험보고서를 작성하는 화학자
- 소설을 쓰는 소설가
- 시를 쓰는 시인
- 보고서를 작성하는 학생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글쓴이가 책을 쓴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역사 관련 소설을 읽는다면, 역사 소설의 내용이 정확한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그와 관련된 역사 서적과 기초자료를 읽어 보아야 한다. 소설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실과 상상을 섞어야 하지

만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목적인 독자는 사실과 상상을 분리해야 한다.

🌿 ‘지식 지도’를 이해하라

모든 지식은 중심개념과, 이차개념, 주변개념이라는 상호 관련된 의미의 ‘체계’로 존재한다. 중심개념을 핵으로 하여 이차개념과 주변개념이 차례로 늘어선 동심원을 상상해 보자. 핵심에 있는 중심개념이 이차개념과 주변개념을 설명한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기를 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중심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중심개념은 다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심개념을 이해하면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빨리 생각하면 할수록 그 체계의 의미를 좀 더 빨리 파악하게 된다.



중심 생각 어떤 학문이든 그것의 중심개념과 이차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그 학문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따라서 역사학의 중심개념을 이해한다면,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과학의 중심개념을 이해한다면,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중심 혹은 핵심개념은 모든 지식 체계의 열쇠이다. 이것은 교과를 제대로 학습하는 열쇠이며, 평생 살면서 지속적으로 배우게 될 모든 것들의 열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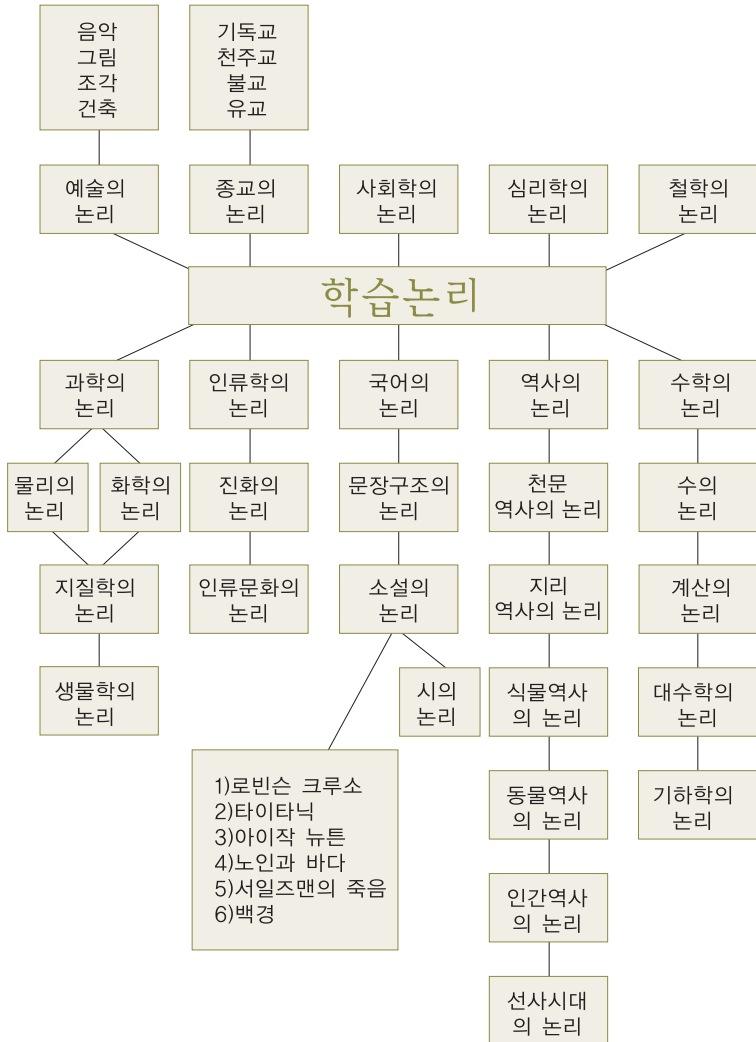
지식은 한 체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식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 분야에서 배운 중심개념을 다른 지식 체계 속에 있는 중심개념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중심개념과 그에 대해 쓰인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하나의 중심개념을 완전히 익히면 다른 중심개념은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지식의 한 체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다른 체계 안에서 생각하는 것도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물학에서 모든 식물이 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면 동물학을 배울 때 모든 동물도 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중심개념이 생물학과 동물학 모두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심리학과 사회학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심리학은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학은 집단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심리학은 개인이 집단 규범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며, 사회학은 사회적 삶의 문제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게 해준다. 이렇게 두 학문 각각의 중심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두 학문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습득지식을 현실세계에 보다 잘 적용할 수 있다.

다음의 지식 지도는 학생 입장에서 본 것이다. 이 지도는 지식의 조직 체계로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학문의 논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중심개념과 다른 개념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게 해준다. 교사의 입장에서 본 지식 지도는 16쪽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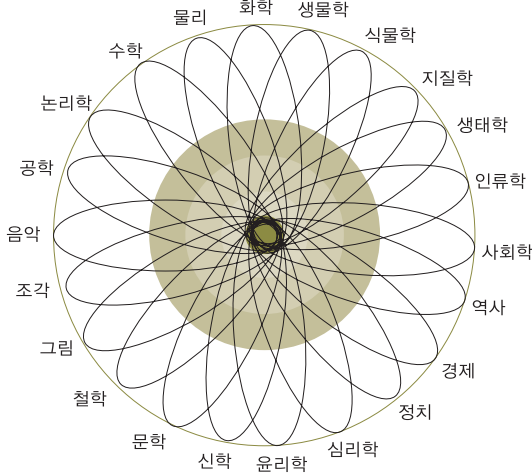
• 학생을 위한 ‘지식 지도’



• 교사를 위한 ‘지식 지도’

수학적, 계량적 분야

물리적, 생명과학적 분야



예술적, 인간적 분야

사회적 분야

❖ 즉흥적 읽기는 피하라

즉흥적 읽기는 자신의 생각과 글쓴이의 생각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구절과 구절을 대충 읽는 방식이다. 글을 대충 읽었기 때문에 읽은 것이 조각나 있다. 비판적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글쓴이의 견해만을 받아들인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읽었기 때문에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한다. 고집을 가지고 읽었기 때문에 읽은 것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

즉흥적으로 배운 지식은 편견과 고정관념, 선입견, 통념 등과 무비판적으로 뒤섞여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읽은 내용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고 반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

반성적 읽기를 하라

반성적 읽기는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구별하면서 읽는 것이다. 또한 한 문장 한 문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는다. 반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읽는 것을 말한다.

반성적으로 읽는 것은 성실하게 읽는 것이며 책에 나와 있는 생각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생각과 관련짓는 것이다. 반성적으로 읽는 것은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다. 따라서 읽은 내용을 명료성, 정확성, 정밀성, 타당성, 깊이, 넓이, 논리, 의미, 공정성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한다.¹⁾

반성적으로 읽는 것은 새로운 생각에 열려 있는 것이며, 새로운 생각을 가지 있게 여기면서 읽은 것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것이다.

읽으면서 읽는 것에 대해 생각하라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성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생각하는 힘을 증진시킨다. 마찬가지로 반성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은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읽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오간다. 약간 앞으로 나아간 다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기 위해서 잠깐 멈춰 서서 스스로를 반성해 본다. 생각의 과정을 점검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의 토대를 튼튼하게 해주며 생각을 뛰어넘어서 생각 자체에 대해 점검하게 해준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생각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읽기에서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읽는 동안에 읽는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책을 읽을 때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의도적으로 글을 천천히 읽고 한 문장 한 문장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이다. 즉, 각 문장의 의미를

1) 역자 주 : 이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의 ‘어떻게 분석적으로 생각하는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나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

만약 글쓴이의 관점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글쓴이의 생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글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의미하는 걸 잘 모르겠어. 이건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라는 식으로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 다시 읽으면서 글쓴이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가능한 한 중요한 생각들을 수용하려고 한다. 글쓴이의 관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글쓴이의 모든 생각을 무시하기보다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받아들인다.

내용을 파악하며 읽어라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글쓴이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독자는 글쓴이의 생각을 재구성하게 된다. 교재의 문장들과 마음속으로 대화하면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자신이 글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 이 글의 의미를 나 자신의 말로 요약할 수 있는가?
- 이 글이 말하는 것에 대한 예를 나 자신의 경험 속에서 찾을 수 있는가?
-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은유나 도표로 표현할 수 있는가?
- 명확한 것은 무엇이고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이 글의 중심 생각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생각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

책은 교사다

모든 책은 잠재적인 교사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교사로부터 중요한 의미를 배우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책은 언제라도 다시 배울 수 있는 무한정의 가르침을 주는 교사이다. 때문에 우리는 책을 통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배울 수

있다. 글을 주의 깊게 읽어서 이런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글쓴이의 생각을 읽어라

우리는 모두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알고 있는가? 자신의 생각이 얼마큼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성장한 문화에 의해서 얼마큼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자신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 중에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을 평가하는 데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가? 자신이 가진 신념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들어간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접하면서 자기 생각의 장점과 단점을 더 잘 알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이차적인 사고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즉, 자신의 생각 밖에서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생각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우선 모든 생각에는 여덟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생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제**에 바탕을 둔 **관점**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생각 속에는 **함축**된 것이 있다. 또한 우리는 **정보**와 사실과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서 **개념**과 아이디어와 이론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질문**에 답을 하고 문제와 쟁점을 **해결(해석·추론)**한다.

그러므로 결국 생각한다라는 것은

- 목적을 가지고
- 질문을 하며
- 정보를 활용하여
- 추론을 하고
- 개념을 사용하며
- 전제를 갖고
- 함축을 가지며
- 관점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여덟 가지 기본요소를 잘 이해하게 되면 생각을 더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적 도구를 갖는 것이다. 또한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의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글을 통해서 생각한다. 목적을 가지고 읽으며, 개념 또는 아이디어를 사용하며, 전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추론을 하고 있고,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한편 우리가 읽고 있는 글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글 속에 숨어 있는 글쓴이의 목적, 글쓴이의 질문, 전제, 개념 등을 찾아내야 한다.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잘 이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자신의 생각도 잘 이해하게 된다.

‘읽기’와 ‘생각하기’를 효과적으로 반복할 수 있게 되면 생각한 것을 읽는 것에 반영할 수 있고 읽은 것을 생각하는 것에 반영할 수 있다. 읽은 내용의 논리가 생각을 향상시키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물론 이미 갖고 있던 생

각과 새로운 생각이 조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미룰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

🌿 제대로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읽기는 하나의 지적인 작업이다. 이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도구와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자동차 엔진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수리하는 일을 생각해보라.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은 작업 방법을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엔진 분해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엔진 부품을 검사하는 방법 등을 알아야 한다. 또한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부 연소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이론과 실습 모두를 훈련받지 않고는 자동차 엔진을 제대로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글을 읽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읽기를 배운다는 것은 잘못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수동적으로 책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읽기를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눈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 줄을 따라 읽다보면 그냥 별 방법이나 노력 없이도 자동으로 의미를 알게 된다.’

🌿 ‘제대로 읽기’의 5단계

글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우선 읽기가 글의 중요한 의미를 찾아서 내면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작업은 고도의 구성적 활동이다. 먼저 지적 훈련을 통하여 글쓴이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반성적 읽기가 되어야 한다. 이 훈련의 기초는 ‘제대로 읽기’이다. 제대로 읽기에는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 반성적으로 글을 읽는다고 해서 이 모든 단계를 항상 거칠 필요는 없다. 주어진 목적에 따라 그 중 몇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1 단계 : 문장 바꿔 쓰기

한 문장 한 문장을 바꾸어 쓰기

자신이 읽고 있는 각 문장의 의미를 자신의 말로 진술하는 것이다. 부록 A의 문장 바꿔 쓰기 예시를 참고하라.

2 단계 : 주제 명료화 하기

문단의 주제를 명료하게 설명하기

1. 주제의 진술 : 문단의 요점을 진술하라. (“이 문단의 요점은, _____ ”)
2. 주제의 상세화 : 그 요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라. (“다시 말해, _____ ”)
3. 주제에 대한 예 들기 :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실제 생활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보라. (“예를 들어, _____ ”)
4. 주제에 대한 비유적 설명 : 문단의 요점을 자신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다른 의미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은유와 유추, 혹은 그림이나 도표로 표현해 보라. (“다른 것에 비유하면, _____ ”)

3단계 : 내용 분석하기

읽고 있는 내용의 논리를 분석하기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이 만들어낸 산물을 읽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의 요소를 사용해서 읽기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한다.(질문 순서는 각자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



글쓴이의 생각이 갖고 있는 논리를 찾아내기 위해 부록 B(사설의 논리 분석하기)의 모형을 사용하라.

4 단계 : 내용 평가하기

읽은 내용의 논리를 평가하기

우리는 읽은 내용을 생각의 표준 즉, **명료성, 정확성, 정밀성, 적절성, 깊이, 넓이, 논리, 중요성, 공정성** 등을 가지고 평가한다. 이 중에서 몇 가지 표준만을 만족시키는 글쓴이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뜻을 명료하게 진술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는 글쓴이도 있다. 적절한 정보를 사용하지만 주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글쓴이도 있다. 이럴 때 독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글쓴이가 가진 생각의 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 글쓴이는 자신의 의미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가? (명료성)
- 글쓴이의 주장은 정확한가? (정확성)
- 글쓴이는 충분히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설명하였는가? (정밀성)
- 글쓴이는 자신의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를 소개하지는 않았는가? (적절성)
- 글쓴이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을 깊이있게 고려하고 있는가? (깊이)
- 글쓴이는 적절한 관점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가? (넓이)
- 이 글은 내적으로 일관되어 있는가? (논리)
- 중요한 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가? (중요성)
- 글쓴이는 글을 공정하게 쓰고 있는가? (공정성)

5단계 : 역할놀이

글쓴이의 목소리로 말하기

이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최종 테스트이다. “자, 내가 글쓴이가 되어 볼게. 네가 질문을 하면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글쓴이가 할 만한 답을 해볼 거야. 나는 일인칭으로 말하려고 해. 배우처럼 말이야.”

이 역할놀이에는 같은 책을 읽은 파트너가 필요하다. 파트너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문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글쓴이의 논리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 단계는 책의 핵심 의미를 진정으로 파악했는가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다.

🌿 구조적 읽기

구조적 읽기는 책의 전반적인 구조를 알아보는 제대로 읽기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책의 제목, 서문, 서론, 목차를 보고 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읽기 방법이다. 구조적 읽기는 주로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활용된다. 첫째는 시간을 내어 제대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책을 평가할 때이고, 둘째는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보는 경우이다. 자세히 읽기 전에 책이 추구하는 기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면, 문단을 읽어 나갈 때 그 부분이 갖는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안다는 것은 책의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책의 부분을 안다는 것은 그 부분을 포함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구조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 이 책의 중심생각은 무엇인가?(서론, 서문, 첫 장을 훑어봄으로서 중심 생각을 찾아낼 수 있다.)
- 전체가 어떤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이에 대해서는 서론, 서문, 첫 장, 목차 등에서 찾을 수 있다.)
- ‘데대로 읽기’를 하면서 물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 문장을 읽는 방법

문장 읽기는 우선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즉, 글쓴이가 그 문장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문장의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문장을 자세히 말해보고, 그 예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보면 된다.

중심문장을 찾는 것은 글 속에서 추진력이 되는 문장을 찾는 것이다. 중심문

단을 찾아내어 중심문장으로 요약하고 이를 다시 중심생각과 중심질문으로 요약하는 것도 구조적 읽기의 한 방법이다.

읽기 훈련에서는 한 문장이 좀 더 넓은 맥락 속에서 다른 문장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각 문장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

- 이 문장이 글 속의 다른 문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 이 문장이 이 글 전체의 중심생각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문장을 읽을 때는 언제나 다른 문장과 관련지어 읽고 각 문장과 글쓴이의 목적을 연결해 읽어야 한다. 전체적인 맥락을 벗어나서 읽으면 앞뒤 문장과 관계없이 읽게 되어 논점을 벗어나게 된다. 앞뒤 문장은 보통 글쓴이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거나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한다. 글을 관대하고 편견 없이 읽으라. 요점의 질을 따져보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거나 과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단을 읽는 방법

문단을 주의 깊게 읽으려면 제대로 읽기의 한두 가지 단계를 사용해서 읽어야 한다. 이는 그 문단의 추진력이 되는 중심생각이나 질문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중심문단을 찾는 것은 글 전체의 추진력이 되는 생각이나 질문을 찾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심문단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조적 읽기다.

글 속에 있는 모든 문단은 다른 문단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생각의 논리적 관계를 알 수 있다. 모든 생각은 의미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단에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 때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라.

- 이 문단의 중심생각은 무엇인가?
- 이 문단의 중심생각은 앞 문단의 중심생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 이 글 전체에서 각 문단의 중심생각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글 전체에서 어떤 문단이 중심생각이나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찾아보라. 그리고 가능하면 그러한 생각을 자신의 삶에 있었던 의미 있는 상황이나 경험과 연결해보라. 글쓴이의 중심생각을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 이 책의 중심생각과 내가 이전에 이해하고 있던 생각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 이 책에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는가?
- 이 책의 중심생각과 비슷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교재를 읽는 방법

교재를 성공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모든 교재가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 체계가 내면화될 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교재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역사 교재는 과거의 사건에 대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르친다. 생물 교재는 생명체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르친다. 수학 교재는 수와 도형, 표 등에 대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르친다. 과학 교재는 질량과 에너지 그리고 양자간의 관련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르친다.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수학 교재가 수학적 질문과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찾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 수학 교재에서 수학을 배울 수는 없다. 역사 교재가 역사적 질문과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찾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 역사

교재에서 역사를 배울 수 없다. 생물 교재가 생물학적 질문과 문제에 정확한 답을 찾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 생물 교재에서 생물을 배울 수 없다. 모든 과목은 특정한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합당한 답을 제시하는 체계다. 화학성분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화학을 배운다.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한다. 다른 교과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교재 역시 이런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교재는 자기 학문을 소개하는 서문이나 개론으로 시작한다. 생물학이란 무엇인가? 물리학이란 무엇인가? 역사학이란 무엇인가?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교과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첫 장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서문에서 교과 전체에 대한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그 체계 내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물학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간단한 생물학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기본적인 생물학적 질문과 관련된 생물학적 정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교재의 나머지 부분을 제대로 읽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체에 대한 명료한 개념 없이 부분을 전체에 연관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체, 부분, 부분, 부분, 부분’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전체, 부분, 전체, 부분’이라는 전략으로 읽어야 한다. 첫째, 서문을 읽고 전체적인 기본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각 부분을 전체와 연결해야 한다. 부분을 전체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그 전체는 종합의 도구이며, 부분에 대한 지식은 분석의 도구이다.

제대로 읽기 단계는 앞에서 안내하였다. 특히 교재를 읽을 때에는 제대로 읽기의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하다. 이 단계를 연습하려면 부록 C (교재의 논리)에 나와 있는 보기를 사용하라. 부록 D는 그 예로 환경학의 전반적인 논리가 예시되어 있다.

🌿 신문을 읽는 방법

뉴스를 잘 읽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회와 문화는 나름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 세계관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과 보는 방법에 색을 칠한다. 뉴스미디어 역시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기사를 쓴다. 예를 들어 나의 삶에 대해 기사를 쓰려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한 사람은 절친한 친구고 한 사람은 적이라고 하자. 절친한 친구는 나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려 할 것이고, 적은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둘 다 자신이 진실만을 말하려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뉴스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에 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려는 뉴스 미디어가 있고,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려는 뉴스 미디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뉴스에 대한 비판적인 독자로서 이 두 편견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읽기 원한다면, 아마도 신문 귀퉁이에 있는 작은 활자를 읽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유의 기사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고 통제되며 쉽게 무시되기 때문이다. 프랑스를 적대시하는 나라의 신문 역시 같은 방식으로 뉴스를 구성할 것이므로 그 기사의 편향성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한다.

선진국 국민 대부분은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뉴스 미디어가 제공하는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리즈 중 하나인 ‘어떻게 매체의 허와 실을 구별해야 하는가’를 읽는 것이 좋다. 그 책은 주로 다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
- 매스 미디어가 주는 것 이외의 다양한 생각과 자료를 찾는 방법
- 뉴스에 담긴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

- 다양한 관점에서 뉴스를 바라보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법
- 뉴스의 명료성, 정확성, 적절성, 깊이, 넓이, 중요성을 평가하는 방법
- 한 뉴스 안에서 모순과 불일치를 찾아내는 방법
- 뉴스가 덮으려 하거나 무시하려는 사실을 찾아내는 방법
- 우호적인 관점과 비우호적인 관점을 찾아내는 방법

위의 방법은 비판적인 뉴스 읽기 기술을 향상시켜준다. 매스 미디어는 우리의 세계관에 영향을 준다. 그러한 매스 미디어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편견을 알아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주류적 관점과 함께 반대되는 관점까지도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결론을 잘 내릴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사실 읽는 방법

사실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을 쓰는 사람이 현재의 쟁점에 대해서 한쪽을 지지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사실을 쓰는 사람은 모든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논문이나 리포트와 다르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실을 읽는다. 즉, 사실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면 그 사실을 칭찬하고 반대로 자신의 신념과 다르면 비판한다. 따라서 독자는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직되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세상에는 접하지 못한 무수히 많은 관점이 있다. 독자들이 고민해보거나 평가해보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다.

반면 비판적인 독자는 과거에 자신이 잘못했을 수 있으며 현재도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욕구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같은 개방적인 마음가짐이다. 특히 반대편 입

장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어야 한다.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익숙하지 않은 관점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물론 신문은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지 않는다. 신문은 주로 주류 독자의 관점을 제시할 뿐이다. 왜냐하면 신문의 목적은 국제적인 관점 혹은 다른 관점을 독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의 신념이나 선입견에 부응할 때에만 신문은 돈을 벌 수 있다. 따라서 신문은 과격하게 다른 주장을 제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부득이 그렇게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주장이 단지 의견임을 강조한다.

비판적인 독자는 모든 사실을 똑같이 우호적으로 읽는다. 그들은 폭넓은 관점을 찾아서 소화하고자 노력한다. 특히 문화의 주류에서 무시되어온 관점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비판적인 독자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인종중심주의나 사회중심주의를 피하면서 다양한 뉴스거리를 찾으려고 한다.

읽은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초등학교에 다닐 때 우리는 책에 낙서하지 말라고 배웠다.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책을 사서 중요한 내용을 읽어야 할 때는 상황이 다르다.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a) **교재가 주는 의미에 관해서 특별한 판단을 내리면서 교재와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또한 b) **읽으면서 그 중심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c) **이 중심생각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생각을 연결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표시를 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 핵심 생각이나 질문, 사실, 전제, 함축, 관점, 의심나는 것, 궁금한 것 등에 표시를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각자 나름의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여기서는 표시를 하는 데 유용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처음에는 몇 가지 표시만 사용하다가 차차 나머지를 덧붙이는 것이 좋다.

1. 중심개념에는 동그라미를 하고, 그 정의에는 밑줄을 긋는다.

읽으면서 중심개념에는 동그라미를 하고 그 정의에는 밑줄을 긋는다.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해 놓는다. (중심개념은 다른 개념을 설명해준다. 낱말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2. 중요한 결론에 느낌표를 한다.

중요한 결론에는 느낌표를 하나 표시하고, 좀 더 중요한 결론에는 느낌표를 2개, 결정적인 결론에는 3개를 표시한다. (!, !!, !!!)

3. 잘 이해되지 않는 문장에는 물음표를 한다.

글쓴이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질문을 글로 적거나 그 문장 끝에 물음표를 한다. 나중에 이 질문으로 되돌아와서 자신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4. 중요한 문제나 쟁점을 메모한다.

일반적으로 책의 각 장은 핵심적인 문제나 쟁점을 가지고 있다. 메모 앞에는 예를 들어 문제의 경우 '문제' 라고 써서 표시한다.

5. 중요한 정보, 자료, 증거를 메모한다.

글쓴이가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한 정보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그 옆에 '정보' '자료' '증거' 라고 표시한다.

6. 글쓴이의 관점이 눈에 띄면 여백에 기록한다.

'관점' 이라고 표시하고 기록한다.

7. 문제가 될 만한 전제를 발견했을 때는 여백에 기록한다.

'전제' 라고 표시한다.

8. 가장 중요한 함축을 발견했을 때는 여백에 기록한다.

‘함축’ 이라고 표시한다.

9. 생각이 떠오르면 무엇이든 적어놓는다.

여백에 적거나 책 뒷부분에 적을 수도 있다.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물론 글쓴이의 생각이 완전히 이해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10. 중요한 개념을 도표로 만들어서 연결한다.

글을 읽을 때 전체 의미를 파악하고 싶으면 개념의 상호관련성을 보여주는 도표를 그리는 것이 좋다. 책의 앞뒷면을 사용하여 도표를 그린다. 만일 도표가 정교해서 공간이 더 필요하면 공책을 사용한다.

표시와 약호

동그라미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개념
정의	중요한 정의
!, !!, !!!	중요한 결론
?	이해되지 않는 것
문제, 쟁점	글쓴이가 제시하는 핵심 문제나 쟁점
정보, 자료, 증거	핵심 정보나 자료나 증거
관점	핵심적인 관점
전제	문제 있는 전제
함축	핵심적인 함축이나 결과
여백이나 여분의 페이지에 메모	자신의 생각 적기
도표	중심개념의 상호관련성을 보여주는 그림

🌿 학습을 위한 읽기

잘 배우려면 잘 읽어야 한다. 몇 줄을 제대로 읽는 것이 많은 내용을 대충 읽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교재는 잘 읽어야 한다. 중요한 교재란 중요한 생각이 담겨 있고, 이를 통해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를 의미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읽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완벽하게 교육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글을 통해 서로 갈등하는 관점을 접하고, 중요한 개념을 내면화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개념을 생활에 적용하는 지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읽기를 통해 끊임없이 학습하지 않고는 교육받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왜 그럴까? 교육은 학교에서 시작해서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일생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머릿속에 이미 자리잡은 생각과 새로운 생각을 끊임없이 통합하지 않으면 오래된 생각은 침체되고 경직되기 마련이다.

🌿 생각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읽기

어떤 학문이나 교과에 대한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고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학문의 체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사고의 기초가 되는 구조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대로 읽기의 3단계에서 설명한 요소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1) 목적과 목표, 2) 질문, 문제, 쟁점, 3) 정보나 자료, 4) 개념과 이론과 아이디어, 5) 해석과 결론, 6) 전제, 7) 함축과 결과, 8) 관점을 위한 읽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읽는 힘과 능력이 쌓인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은 것의 사고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 학문을 이해하기 위한 읽기

학문 연구를 위해 글을 읽으려면 먼저 모든 학문이 사고 **체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말해 학문은 **체계들의 체계**이다. 특히 과학적 사고는 대규모 사고 체계를 구성한다. 대규모 체계로서 과학은 그 안에 하위 체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과학이라는 체계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생리학 등등의 체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과학은 체계들의 체계이다.

그러나 과학이 과학적 사고를 이끄는 대부분의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있는 데 반해, 어떤 학문은 그 안의 체계들이 서로 갈등하기도 한다. 철학, 심리학, 경제학이 바로 그 예이다. 이런 학문의 체계 속에는 여러 학파가 서로 갈등하고 있다. 과학과 달리 철학적·심리학적·경제학적 체계는 자신의 학파를 위해 서로 대립한다. 서로 반박하는 학파들이 경쟁하고 있다.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읽으려면 우선 자기가 읽고자 하는 학문이 상호지원적인 체계인지(예를 들면 수학, 과학), 아니면 갈등하는 체계(철학, 심리학, 경제학)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상호지원적인 체계인 경우에는 그 체계에 익숙해야 하고 그들이 서로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파악해보아야 한다. 갈등하는 체계인 경우에는 각 분야가 어떻게 서로 갈등하고 있는지를 탐구함으로써 그 체계에 익숙해지게 된다. 물론 갈등체계를 탐구하다보면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 두 체계가 서로 갈등한다 하더라도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대립하는 예는 드물기 때문이다.

🌿 ‘제대로 읽기’의 기술

다음에는 저명한 책에서 발췌한 글들이 실려 있다. 모든 글에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가치 있는 생각이 담겨 있다. 이제 ‘제대로 읽기’ 1~4단계에 대한 보기를 들어볼 것이다. 역할놀이인 5단계는 말로 하는 활동이다. 역할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글쓴이와 가상의 질문자 사이에서 일어날 만한 대화를 꾸며야

한다. 이 부분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각 발췌문에 대해서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보기를 모두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1단계에 대한 보기는 모두 제공하고자 한다.

1단계 읽기는 글쓴이의 말을 자신의 말로 바꾸는 단계다. 즉, 글쓴이의 말과 생각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표현이 글쓴이의 본래 의미를 잘 포착했다면 문장 바꿔 쓰기를 제대로 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표현이 글쓴이가 쓴 의미를 열어보이거나 적어도 열어보이기 시작했다면 성공적이다. 문장 바꿔 쓰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이다.**”

▶ “모든 국민이 정치과정에서 동등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국가는 민주적인 국가이다.”

위의 문장 바꿔 쓰기는 국가가 얼마만큼 민주적인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의미를 열어준다. 예를 들어 이 문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부자들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돈을 써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자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인가?”

2단계 읽기는 중심생각을 진술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예를 들고 비유를 하면서 **문단의 주제**를 밝히는 것이다.

3단계 읽기에서는 글쓴이의 **목적**을 찾아내고 다음의 것들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문제 또는 쟁점
-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 문단에서 가장 근본적인 **결론**
- 문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론 또는 아이디어
- 문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함축**
- 문단에서의 **관점**

4단계 읽기에서는 아홉 가지 생각의 표준, 즉 명료성, 정확성, 정밀성, 적절성, 깊이, 넓이, 논리, 중요성, 공정성의 관점에서 글을 평가하는 것이다.

각 발췌문은 두 번 나온다. 첫 번째는 보기 없이, 두 번째는 보기와 함께 제시된다. 보기를 보기 전에 스스로 문장 바꿔 쓰기를 연습하는 것이 좋다. 제시된 보기들은 정답이라기보다는 적절한 해석이다. 문장 바꿔 쓰기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어진 구절이나 문장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기 힘들면 사전을 참고한다. 서둘러서 해석하면 안된다. 가능한 한 본래 의미를 정확하고 만족스럽게 파악할 때까지 연습하라. 문장을 바꿔 쓰는 기술은 일종의 예술이며, 제대로 읽기에서 주춧돌과 같은 구실을 한다.



제2부 실제

🌿 '제대로 읽기' 연습

다음의 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보고 자신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검토해보라. 자신이 한 것과 보기자료를 비교해보라. 만약 문장 바꿔 쓰기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면 부록 A에 나와 있는 문장 바꿔 쓰기 예시자료를 참고하라.

독립선언문

배경 정보 이 글은 1776년 7월 4일 발표된 독립선언문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독립선언문이 당시 미국에 있었던 13개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면서 채택했던 정치선언의 일부임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또한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자연법과 자연신이 부여한 독립적이고 평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인류의 신념을 엄정히 고려

해볼 때 우리는 독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 모두는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우리 모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는 폐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의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실로 인간의 역사를 숙고해볼 때,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는 사소하고도 일시적인 이유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익숙한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그 폐해를 최대한 감내하려는 습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 그러나 오랜 시일에 걸친 확대와 착취가 국민을 절대적인 전제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목적임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녕을 위해 새로운 보호자를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다.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연습

인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자연법과 자연신이 부여한 독립적이고 평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인류의 신념을 엄정히 고려해볼 때 우리는 독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 모두는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는 폐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의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실로 인간의 역사를 숙고해볼 때,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는 사소하고도 일시적인 이유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익숙한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그 폐해를 최대한 감내하려는 습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

그러나 오랜 시일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국민을 절대적인 전제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목적임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녕을 위해 새로운 보호자를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보기

인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정부들 사이의 정치적 연합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한 집단의 사람들이 과거 다른 집단과 형성했던 결합을 분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자연법과 자연신이 부여한 독립적이고 평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어떠한 정부도 다른 정부를 지배해서는 안 되며 모든 정부는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다른 국민에 대해서 스스로 독립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행위는

자연법에 기초한 완전히 자유로운 행위다. 따라서 13개 주는 자연법에 의해서 항거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국가에 독립과 평등을 선언할 권리가 있다.

인류의 신념을 엄정히 고려해볼 때 우리는 독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 한 국민이 다른 국민들과 분리하여 독립국을 세우고자 할 때는 세계인들의 견해를 존중하여 자신들이 혁명적인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널리 알려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 모두는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리로 인정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다. 모든 사람은 선하다는 것, 모든 사람은 똑같은 기본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기본권이란 상처받지 않을 권리, 해를 입지 않을 권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 사상의 자유, 이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신념에 대한 권리, 자유의 권리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정부는 우리들의 생명, 자유,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정부에 권력을 준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는 폐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부가 평등, 생명, 자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가 국민의 평등, 자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은 그 정부에 항거하여 전복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의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 국민에게는 국민의 자연권을 보장해줄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권리가 있다.

실로 인간의 역사를 숙고해볼 때,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는 사소하고도 일시적인 이유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 인간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중요하고 지속적인 이유가 아니고서는 정부를 전복시켜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익숙한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그 폐해를 최대한 감내하려는 습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

▶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항거하기보다는 감내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오랜 시일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국민을 절대적인 전체 정치에 예측 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녕을 위해 새로운 보호자를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을 오랫동안 무시할 때, 정부에 대항해서 국민의 자연권을 보장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2단계 : 주제 명료화하기의 보기

다음 네 가지 과제를 완성하라.

1. 글의 주제를 자신의 말로 진술하라. (주제의 진술)
2. 그 주제를 상세히 기술하라. (주제의 상세화)
3. 그 주제에 대해 한 개 이상의 예를 들어라. (주제에 대한 예 들기)
4. 은유나 유추를 사용하여 그 주제를 설명하라. (주제에 대한 비유적 설명)

1. 주제의 진술

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의 인권이 침해받았을 때 정부에 항거하여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2. 주제의 상세화

국민들은 정부에 의해서 억압되고 착취되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받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억압된 국민들은 새로운 나라와 정부를 세울 혁명적인 권리를 갖는다.

3. 주제에 대한 예 들기

프랑스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미국에서는 독립혁명이 일어났고, 러시아에서는 러시아혁명이 일어났다

4. 주제에 대한 비유적 설명

정치혁명은 가정의 이혼과 같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분리되어서 독자적인 길을 간다. 이들은 다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다. 이혼은 혁명과 같다. 왜냐하면 이혼은 가족 구성원이 현재의 가족 구조로부터 지속적으로 고통을 느끼며, 가족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 일어나기 때문이다. 정치혁명과 같이 이혼도 때로는 폭력을 수반한다.

3단계 : 내용 분석하기의 보기

글을 분석하라.

- 글쓴이의 목적
- 가장 중요한 질문, 문제, 또는 쟁점
- 가장 중요한 정보나 자료
- 가장 기본적인 결론
-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론, 아이디어
- 가장 근본적인 전제
- 가장 중요한 함축
- 관점

좀 더 자세한 지침은 부록 B를 참고하라.

1. **글쓴이의 목적** : 영국에 대한 미국 식민지의 1776년 정치혁명을 정당화하면서 인간의 권리와 그것의 침해에 대해 선언하고 있다.
2. **글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문제** : 보편적인 인권은 존재하는가? 국민은 어떤 경우에 정부 전복을 시도할 수 있는가? 영국정부에 대한 식민지 국민의 대항은 정당한가?
3. **가장 중요한 정보나 자료** : 미국 식민지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 정부에 의해 식민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들이다.
4. **글쓴이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론** : 정부는 시민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여 그들이 가능한 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정부를 전복할 권리가 있다.

5. 글쓴이가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 이론, 아이디어 : 인권, 혁명, 정부의 역할과 의무
6. 글쓴이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 : 모든 국민은 똑같은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정부는 국민들에 대하여 똑같은 기본적 의무를 갖는다. 국민이 정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
7.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함축 : 세계인에게 혁명권을 포함하는 보편적 인권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8. 글쓴이의 관점 : 모든 인간은 동일한 가치와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동시에 모든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봉사할 의무를 갖는다.

4단계 : 내용 평가하기의 보기

이 글을 아홉 가지 기본적인 생각의 표준, 즉 명료성, 정확성, 정밀성, 적절성, 깊이, 넓이, 논리, 중요성, 공정성에 따라 평가하라.

1. 글쓴이는 자신이 의도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물론 당시의 문어적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 글은 명료성이 뛰어나다.
2.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발췌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비참함을 표현하는 대목에서 정확성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우리가 읽은 선언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이상을 선언하고 있다. 많은 정부 관료들이 실제로 이론은 받아들이면서도 이러한 이상은 어기고 있다. 예를 들어 UN인권선언은 인간

의 기본권을 현대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세계 모든 국가가 여기에 동의했지만 인권 침해는 아직도 모든 국가에서 하나의 현실이다.

3. 글쓴이는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가?

이 글 뒤에 나오는 대목에서는 구체적인 비참함을 정밀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

4. 글쓴이는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 글의 목적은 미국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권과 인권의 파괴를 상세하게 드러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제공된 자료는 핵심 목적에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5. 글쓴이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복잡성을 고려하는가? 아니면 피상적인가?

짧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문은 인간의 삶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과 이상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 주제는 매우 복잡적이다.

6. 글쓴이는 다른 적절한 관점에 대해 고려하였는가, 아니면 협소한 관점에서 쓰고 있는가?

정치선언문으로서 이 글은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다루는 범위는 넓다. 동시에 ‘권력은 세상을 강하고 잔인하게 지배해야 한다.’는 관점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대부분의 정치현실에 깔려 있으며,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가진 관점이다.

7. 이 글은 내적으로 일관되어 있는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은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 글은 내적으로 아주 일관되어 있다. 동시에 이 글은 일반 사람의 권리를 초월하는 특권이 있다는 견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8. 이 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가, 아니면 사소한가?

이 선언문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다.

9. 글쓴이는 공정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불공정한 태도로 주제를 다루는가?

공정하다. 독립선언문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기 때문이다.

5단계 : 역할놀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할놀이를 해보자. 자신을 독립선언문의 주요 저자인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누군가로 하여금 자신에게 독립선언문에 관하여 질문하게 하라. 그리고는 자신이 제퍼슨인 것처럼 그 질문에 답하라. 상대가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제퍼슨이 했음직한 답을 스스로 재구성해서 답해보라. 그 대답은 어떤 식으로든 글 속에 함축된 것이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

배경 정보 이 글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1849년에 쓴 '시민 불복종'의 첫 부분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9세기 미국의 문화, 문학사에서 매우 두드러진 인물이다.

나는 '작은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 라는 표어에 적극 찬성하며, 그것이 하루 바빠 조직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 말은 결국 '가장 좋은 정부는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 라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나는 이 말 또한 믿는다.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갖게 될 정부는 바로 그러한 종류의 정부일 것이다. 정부는 기껏해야 하나의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는 거의 언제나 불편한 존재이고, 때로는 모든 정부가 불편한 존재이기도 하다. 상비군에 대해 비중 있는 반대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런 반대 의견은 결국 상설 정부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상비군은 상설 정부의 팔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이 자신들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방식에 지나지 않지만, 국민이 그것을 통해 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 자체가 남용되거나 악용되기 쉽다.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연습

나는 '작은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 라는 표어에 적극 찬성하며, 그것이 하루 바빠 조직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 말은 결국 '가장 좋은 정부는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 라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나는 이 말 또한 믿는다.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갖게 될 정부는 바로 그러한 종류의 정부 일 것이다.

정부는 기껏해야 하나의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는 거의 언제나 불편한 존재이고, 때로는 모든 정부가 불편한 존재이기도 하다.

상비군에 대해 비중 있는 반대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런 반대 의견은 결국 상설 정부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상비군은 상설 정부의 팔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이 자신들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방식에 지나지 않지만, 국민이 그것을 통해 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 자체가 남용되거나 악용되기 쉽다.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보기

나는 '작은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 라는 표어에 적극 찬성하며, 그것이 하루 바빠 조직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가장 효율적인 정부 형태는 최소의 규칙과 규제 법률만을 가진 정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이상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나 소로는 정부가 그러한 이상을 향해서 더 빨리 더 조직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기 원한다.

이 말은 결국 '가장 좋은 정부는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 라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나는 이 말 또한 믿는다.

▶ 이상적인 정부 형태는 사람들에 대한 규칙이나 규제가 없는 정부이다.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갖게 될 정부는 바로 그러한 종류의 정부 일 것이다.

▶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또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요구를 당연한 것으로 존중할 때, 문제들을 잘 생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을 때,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기껏해야 하나의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는 거의 언제나 불편한 존재이고, 때로는 모든 정부가 불편한 존재이기도 하다.

정부는 기껏해야 필요악이며 단기적으로 필요한 도구이다. 전형적인 대부분의 정부는 국민에게 유용하거나 이롭지 않다. 정부는 때로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봉사하지 못한다.

상비군에 대해 비중 있는 반대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런 반대 의견은 결국 상설 정부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상비군은 상설 정부의 팔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이 자신들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방식에 지나지 않지만, 국민이 그것을 통해 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 자체가 남용되거나 악용되기 쉽다.

▶ 정부 제도의 문제점은 나라의 군대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유사하다. 두 문제는 상호 관련되어 있다. 경직된 정부가 경직된 군대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립되면 정부는 국민의 욕구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본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 국민이 그에 대해 뭔가 손을 쓸 겨를도 주지 않고 말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문제는 정부 제도에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2단계 : 주제 명료화하기의 보기

다음 네 가지 과제를 완성하라.

1. 글의 주제를 자신의 말로 진술하라. (주제의 진술)
2. 그 주제를 상세히 기술하라. (주제의 상세화)
3. 그 주제에 대해 한 개 이상의 예를 들어라. (주제에 대한 예 들기)
4. 은유나 유추를 사용하여 그 주제를 설명하라. (주제에 대한 비유적 설명)

1. 주제의 진술

모든 정부는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별 필요도 없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작은 통치만을 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가장 잘 봉사한다. 국민이 지배받지 않고 살 수 있을 때가 되면 아마도 정부 없이 살기를 요구할 것이다.

2. 주제의 상세화

민주 정부는 국민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권력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기 쉽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국민의 권리는 파괴된다. 따라서 최소 형태의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생각을 잘 할 수 있을 때만이, 그리고 불필요한 통치가 없어도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만이 그러한 정부를 가질 수 있다.

3. 주제에 대한 예 들기

이러한 주제는 미국과 멕시코 전쟁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정치가와 사

업가들이 토지와 이윤을 탐하였기 때문에 투표자들이 전쟁을 승인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전쟁터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4. 주제에 대한 비유적 설명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정부 관료들이 국민의 요구보다는 자신의 요구에 맞는 규제들을 제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시민 불복종(두 번째 발췌문)

배경정보 이 글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1849년 쓴 '시민 불복종'의 또 다른 부분이다.

옳고 그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다수가 아니라 양심인 정부는 있을 수 없는가? …… 시민이 자신의 양심을 한순간이라도 혹은 아주 적은 정도라도 입법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아야 할 유일한 책무는 언제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 만약 불의가 정부라는 기계에 필수 불가결한 마찰의 일 부분이라면 그냥 내버려두라. 그냥 내버려두라. 그냥 내버려두라…… 만일 그 불의가 그 자체를 위한 스프링이나 도르레, 로프나 크랭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치료가 병보다 더 나쁠지 좋을지 생각해 보는 게 좋으리라. 그러나 이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기라. 당신의 삶으로 하여금 그 기계를 멈추는 역마찰이 되도록 하라.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연습

옳고 그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다수가 아니라 양심인 정부는 있을 수 없는가?

시민이 자신의 양심을 한순간이라도 혹은 아주 적은 정도라도 입법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아야 할 유일한 책무는 언제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만약 불의가 정부라는 기계에 필수 불가결한 마찰의 일부분이라면 그냥 내버려두라. 그냥 내버려두라. 그냥 내버려두라…… 만일 그 불의가 그 자체를 위한 스프링이나 도르레, 로프나 크랭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치료가 병보다 더 나쁠지 좋을지 생각해 보는 게 좋으리라.

그러나 이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기라. 당신의 생명으로 하여금 그 기계를 멈추는 역마찰이 되도록 하라.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보기

옳고 그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다수가 아니라 양심인 정부는 있을 수 없는가?

- ▶ 정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기보다는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윤리적 감각에 기초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도록 통치해야 한다.

시민이 한순간만이라도, 혹은 아주 적은 정도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 ▶ 개인으로서 시민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것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입법자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 만일 시민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바라지 않는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판단하는 지적 능력은 왜 가지고 있는가?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해야지 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유일한 책무는 언제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 ▶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법에 따르는 것보다는(법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옳은 것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국민들의 진정한 의무는 자신의 생각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지 법이 말하는 옳은 것을 행하는 게 아니다.(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윤리를 이해하고 윤리와 문화적 규범 및 가치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불의가 정부라는 기계의 필수 불가결한 마찰의 일부분이라면 그냥 내버려두라. 그냥 내버려두라. 그냥 내버려두라…… 만일 그 불의가 그 자체를 위한 스프링이나 도르레, 로프나 크랭크를 가지고 있다면 치료법이 병보다 더 나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는 게 좋으리라.

▶ 정치 제도를 바꿔서 불공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바뀐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공평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즉, 불공평을 줄이는 것이 더 큰 불공평을 만드는 경우이다. 이럴 바에는 아예 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럴 때는 제도를 그대로 두어라.

그러나 이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기라. 당신의 생명으로 하여금 그 기계를 멈추는 역마찰이 되도록 하라.

▶ 그러나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기본적 인권이 계속적으로 부정된다면, 그 법을 폐지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정부가 그러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2단계 : 주제 명료화하기의 보기

1. 주제의 진술

국민들은 법에 따르는 것보다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법이 당신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 불공정한 행동을 하도록 한다면 당신은 그 법을 폐지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2. 주제의 상세화

일부 법은 필요악으로 여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법을 바꾸게 되면 바꾸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공정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법

이 불공정하며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법을 거부하는 길밖에 없다면, 양심적인 사람은 그 법을 거부할 것이다. 사람은 불공정한 법을 없애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3. 주제에 대한 예 들기

1800년대 미국 북부 지역에서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남부 지역 노예들이 북쪽으로 탈출하는 것을 도왔다. 노예를 돕는 것이 감옥에 가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불공정한 법에 매이지 않고 기꺼이 이 일을 행하였다.

4. 주제에 대한 비유적 설명

또래집단에 의존해서 행동하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또래집단의 아이들은 자기 집단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행동하기를 바란다. 또래집단 아이들이 그 집단 바깥에 있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그럴 경우에 괴롭히는 것은 그 또래집단 안에서 수용된 행위이다. 그런데 또래집단 내 어떤 아이가 그런 행위에 반대하면, 그 아이는 보통 집단으로부터 벌칙을 받게 된다.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또래집단의 권위에 도전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따라서 어른들도 정부가 통과시킨 불공정한 법에 대해서는 항거해야 한다.

19세기 미국인

배경 정보 이 글은 유명한 역사학자인 헨리 스틸 코메이저가 쓴 ‘미국인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발췌했다.

미국인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순응주의자다. 미국인이 도덕을 언제나 준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교도의 도덕적 기준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후세대는 자신의 선조들이 그런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억압되고 통제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고통으로 의식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 도덕적 문제에서 순응주의와 관습주의는 가끔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여성에 대한 문화의 전반적인 통제에 따르려는 자발성은 불관용을 조장하고 검열을 정당화하려는 전통적인 청교도주의와 연대하였다. 언어는 무기력해지고, 문학에서는 불온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예술은 검열을 받아야 했다. 피아노 다리는 여성용 의류로 치장되었으며, ‘배’나 ‘가슴’과 같은 말은 예의 바른 대화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섹스에 관한 토론은 남성에게, 출산에 관한 것은 여성에게 한정되었다. 셰익스피어와 필딩은 프랑스 작가들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평판이 나빴다. 세기 초 파워스가 ‘그리스의 노예들’이라는 나체 작품을 전시했을 때, 세기 말 위대한 화가인 이킨스가 남녀 혼합반에 남자 모델을 썼을 때, 사람들은 매우 격분하였다. 특히 이킨스는 이 일로 펜실베이니아 아카데미에서 추방당했다. 춤, 연극, 남녀 혼합수영이 금지되었다. 예술과 문학에 대한 검열은 도덕에 관한 것, 특히 사랑을 나누는 일, 술 마시는 일에 대한 검열로 이어졌다. 정숙함에 대한 요구가 지나친 검열로 변질되었으며, 금주운동이 금주법으로 변질되었다.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연습

미국인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순응주의자다.

미국인이 도덕을 언제나 준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교도의 도덕적 기준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후세대는 자신의 선조들이 그런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억압되고 통제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고통으로 의식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

도덕적 문제에서 순응주의와 관습주의는 가끔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여성에 대한 문화의 전반적인 통제에 따르려는 자발성은 불관용을 조장하고 검열을 정당화하려는 전통적인 청교도주의와 연대하였다. 언어는 무기력해지고, 문학에서는 불온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예술은 검열을 받아야 했다.

피아노 다리는 여성용 의류로 치장되었으며, ‘배’나 ‘가슴’과 같은 말은 예의 바른 대화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섹스에 관한 토론은 남성에게, 출산에 관한 것은 여성에게 한정되었다. 셰익스피어와 필딩은 프랑스 작가들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평판이 나빴다. 세기 초 파워스가 ‘그리스의 노예들’이라는 나체 작품을 전시했을 때, 세기 말 위대한 화가인 이킨스가 남녀 혼합반에 남자 모델을 썼을 때, 사람들은 매우 격분하였다. 특히 이킨스는 이 일로 펜실베이니아 아카데미에서 추방당했다.

춤, 연극, 남녀 혼합수영이 금지되었다. 예술과 문학에 대한 검열은 도덕에 관한 것, 특히 사랑을 나누는 일, 술 마시는 일에 대한 검열로 이어졌다. 정숙함에 대한 요구가 지나친 검열로 변질되었으며, 금주운동이 금주법으로 변질되었다.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보기

미국인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순응주의자다.

미국인들은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독립적인 사고가였을지 모르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사회 종교적 이해에 관해서는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미국인이 도덕을 언제나 준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교도의 도덕적 기준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미국인은 옳고 그른 것에 관해서 언제나 청교도적인 관점에 따라 살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청교도적인 견해가 도덕적으로 옳고 의무적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후세대는 자신의 선조들이 그런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억압되고 통제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고통으로 의식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

한 역사학적 견해에 따르면 19세기의 미국인들은 이와 같은 청교도적인 규칙에 의해서 곤란을 겪고 내적으로 갈등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의식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도덕적 문제에서 순옹주의와 관습주의는 가끔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여성에 대한 문화의 전반적인 통제에 따르려는 자발성은 불관용을 조장하고 검열을 정당화하려는 전통적인 청교도주의와 연대하였다. 언어는 무기력해지고, 문학에서는 불온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예술은 검열을 받아야 했다.

▶ 성 또는 육체적 욕망과 관련된 것은 금기시되었다. 편협한 규범이 마치 전쟁터처럼 군사적으로 시행되었다. 여성은 점점 더 도덕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되었으며, 청교도가 문화에 점점 더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에 따라 속박과 검열이 옹고 예의바르고 정의로운 것이 되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침해되었고 박탈되었다. 관리들이 검열관이 되어 많은 인쇄물과 예술 작품을 외설과 위험물이라는 이유로 억압했다. 검열을 통과한 책이나 영화, 예술품은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검열에 저촉된다고 여겨지는 사상이나 표현물이 점점 늘어났다.

피아노 다리는 여성용 의류로 치장되었으며, ‘배’나 ‘기슴’과 같은 말은 예의 바른 대화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섹스에 관한 대화는 남성에게, 출산에 관한 대화는 여성에게 한정되었다. 셰익스피어와 필딩은 프랑스 작가들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평판이 나빴다. 세기 초 파워스가 ‘그리스의 노예들’이라는 나체 작품을 전시했을 때, 세기 말 위대한 화가인 이킨스가 남녀 혼합반에 남자 모델을 썼을 때, 사람들은 매우 격분하였다. 특히 이킨스는 이 일로 펜실베이니아 아카데미에서 추방당했다.

▶ 드러내놓은 것은 물론 은밀한 것일지라도 성적이라고 판단되면 대중에게 공개될 수 없었고 공개적인 토론도 할 수 없었다. 청교도적인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 또는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따돌림을 받았다. 피아노 다리조차 가려져야 했는데 청교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성적으로 에로틱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많은 말들이 노골적이고 저속한 것으로 여겨졌다. 여성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고 남성은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다. 셰익스피어나 필딩과 같은 고전적인 작가도 프랑스 작가와 더불어 저속한 사람으로 치부되었다. 남녀 혼합반에서 남자 누드 모델을 세웠던 예술가는 예술아카데미에서 추방되었다.

춤, 연극, 남녀 혼합수영이 금지되었다. 예술과 문학에 대한 검열은 도덕에 관한 것, 특히 사랑을 나누는 일, 술 마시는 일에 대한 검열로 이어졌다. 정숙함에 대한 요구가 지나친 검열로 변질되었으며, 금주운동이 금주법으로 변질되었다.

▶ 이 같은 종교적인 열정이 나라를 휩쓸었기 때문에 춤이나 연극 관람, 남녀 혼합수영이 모두 금지되었다. 특정한 예술과 문학에 대한 사상의 금지는 술을 마실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까지 이어졌다. 성적인 검양은 과도한 청교도주의와 검열로 변질되었으며, 분별력 있는 음주는 공공장소나 사적인 장소를 막론하고 음주를 금지하는 법으로 변질됐다.

2단계 : 주제 명료화하기의 보기

1. 주제의 진술

19세기 미국인은 청교도적인 순응주의자였다. 특히 여성에게는 엄격한 전통적 성도덕을 지키게 했고, 그것을 문화 예술의 모든 측면에 반영시켰다.

2. 주제의 상세화

다시 말해 성적 관습이 도덕을 지배하였고, 그것의 파괴는 비밀에 부쳐졌다. 엄격함과 검열이 법이 되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독단과 완고함이 증가되었다. 이 같은 청교도적인 광신은 개인의 권리를 파괴하기에 이른다.

3. 주제에 대한 예 들기

예를 들면 피아노 다리는 여성 의류로 치장되었고, ‘배’나 ‘가슴’과 같은 말은 예의 바른 대화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19세기 말 미국 최고의 화가였던 토머스 이킨스는 남녀 혼합반에 남자 모델을 썼다는 이유로 펜실베이니아 아

카데미에서 추방당했다. 춤, 연극, 남녀 혼합수영은 금지되었다.

4. 주제에 대한 비유적 설명

19세기 미국인은 세상을 아이들과 같이 단순하게 이해하였다. 아이들 집단에서는 동조하지 않는 아이가 조롱의 대상이 된다. 집단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 아이들은 따돌림을 받는다. 사회적 히스테리와 마녀사냥이 일상적인 것이 된다. 카우보이와 인디언,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식으로 보는 정교하지 않은 세계관이 법이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정치 사회 사상은 문화적으로 협소한 이 같은 사고방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부시 대통령이 세상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우리 편이나 적이나를 결정해야 하며, 그 밖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만일 교활하게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해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선과 악은 모든 인간 존재의 마음에 존재한다.”는 노벨상 수상자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말과 비교해보라.

사랑의 기술

배경 정보 이 글은 유명한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발췌한 것이다.

사랑은 기술인가? 그렇다면 거기에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면 사랑은 우연히 경험하게 되는 즐거운 기분인가? 즉 운만 좋으면 누구든지 '빠져들' 수 있는 그 어떤 것인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론 뒤의 견해를 믿고 있지만 이 책은 앞의 견해, 즉 사랑은 기술이라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사람들이 사랑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사람들은 행복하거나 혹은 불행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수많은 영화를 보고, 사랑을 주제로 한 너절한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사랑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묘한 태도의 이면에는 사랑에 관한 몇 가지 전제가 독립적으로 혹은 서로 얽혀서 깔려 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즉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질 수 있느냐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몇 가지 방법을 취한다. 그 중에서 특히 남성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출세하는 것, 즉 자신의 사회적 지위만큼 부와 권세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몸매를 가꾸고 치장을 하는 등으로 자신을 매력 있게 가꾸는 것이다. 매력 있게 보이고자 원하는 남성이나 여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 밖의 방법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예절과 흥미를 끄는 말솜씨를 익히는 것이며, 유능하고 겸손하며 개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은 성공, 즉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같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스럽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인기와 성적 매력

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이 능동적인 성격을 띠는 점은 그것이 주는 것이라는 특징 외에도 모든 사랑의 형태에는 몇 가지 공통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그 기본적인 요소란 배려, 책임, 존경, 이해 등이다…… 사랑이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존경이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즉, 상대의 독특한 개성을 알아보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관심을 의미한다. 따라서 존경에는 착취가 있을 수 없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성장 발달하기를 원한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됨을 느끼지만 ‘있는 그대로’의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용 대상물로서 그가 필요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독립적일 때, 다시 말해서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 것도 지배하거나 착취하지 않으면서도 혼자서 걸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존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존경은 오직 자유의 기초 위에서만 존재한다. 프랑스의 옛 노래처럼 ‘사랑은 자유의 소산’이지 결코 지배의 소산은 아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강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결단이며 판단이며 약속이다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연습

→ 사랑은 기술인가? 그렇다면 거기에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 그게 아니라면 사랑은 우연히 경험하게 되는 즐거운 기분인가? 즉 운만 좋으면 누구든지 ‘빠져들’ 수 있는 그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사랑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사람들은 행복하거나 혹은 불행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수많은 영화를 보고, 사랑을 주제로 한 너절한 노래들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사랑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묘한 태도의 이면에는 사랑에 관한 몇 가지 전제가 독립적으로 혹은 서로 얽혀서 깔려 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즉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질 수 있느냐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몇 가지 방법을 취한다. 그 중에서 특히 남성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출세하는 것, 즉 자신의 사회적 지위 만큼 부와 권세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몸매를 가꾸고 치장을 하는 등으로 자신을 매력 있게 가꾸는 것이다.

매력 있게 보이고자 원하는 남성이나 여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 밖의 방법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예절과 흥미를 끄는 말솜씨를 익히는 것이며, 유능하고 겸손하며 개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은 성공, 즉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스럽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인기와 성적 매력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이 능동적인 성격을 띠는 점은 그것이 주는 것이라는 특징 외에도 모든 사랑의 형태에는 몇 가지 공통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그 기본적인 요소란 배려, 책임, 존경, 이해 등이다…… 사랑이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존경이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즉, 상대의 독특한 개성을 알아보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관심을 의미한다. 따라서 존경에는 착취가 있을 수 없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성장 발달하기를 원한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됨을 느끼지만 ‘있는 그대로’의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용 대상물로서 그가 필요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독립적일 때, 다시 말해서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 것도 지배하거나 착취하지 않으면서도 혼자서 걸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존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존경은 오직 자유의 기초 위에서만 존재한다. 프랑스의 옛 노래처럼 ‘사랑은 자유의 소산’이지 결코 지배의 소산은 아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강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결단이며 판단이며 약속이다.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보기

사랑은 기술인가? 그렇다면 거기에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 사랑이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예술이라면,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이해를 적용하려는 동기도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면 사랑은 우연히 경험하게 되는 즐거운 기분인가? 즉 운만 좋으면 누구든지 ‘빠져들’ 수 있는 그 어떤 것인가?

▶ 그렇지 않다면 사랑은 순전히 물리적인 쾌락이다. 따라서 그것은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사람들에게 우연히 일어날 뿐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론 뒤의 견해를 믿고 있지만 이 책은 앞의 견해, 즉 사랑은 기술이라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 이 책은 사랑이 개발되는 것이며, 기술과 통찰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쓰여졌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 사랑은 행운처럼 그저 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사람들이 사랑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사람들은 행복하거나 혹은 불행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수많은 영화를 보고, 사랑을 주제로 한 너절한 노래들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사랑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 사람들은 적어도 사랑을 가지 있게 여긴다. 실제로 사랑을 갈망한다. 사랑에 관한 영화를 수없이 보고 사랑에 관한 노래를 수없이 듣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의 능력을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묘한 태도의 이면에는 사랑에 관한 몇 가지 전제가 독립적으로 혹은 서로 얽혀서 깔려 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느냐’, 즉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질 수 있느냐로 생각한다.

▶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사랑에 관한 잘못된 신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선 사람들은 남에게 사랑을 주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랑이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데 열성을 보인다. 사람들은 자신의 연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귀엽게 보이려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몇 가지 방법을 취한다. 그 중에서 특히 남성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출세하는 것, 즉 자신의 사회적 지위 만큼 부와 권세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몸매를 가꾸고 치장을 하는 등으로 자신을 매력 있게 가꾸는 것이다.

▶ 시선을 끌기 위해서 혹은 사랑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남성들은 여성과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 남성들은 주로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위들이 많은 권력과 돈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은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신체를 꾸미거나 옷에 신경을 쓴다.

자신을 매력 있게 보이고자 원하는 남성이나 여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 밖의 방법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예절과 흥미를 끄는 말솜씨를 익히는 것이며, 유능하고 겸손하며 개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은 성공, 즉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스럽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인기와 성적 매력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남녀 모두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예절과 대화 방식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자신을 상대방에게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협동적이고 친절하며 흠잡을 데 없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전략은 친구를 얻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게도 해준다.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은 섹시하게 보이는 것이나 좋아 보이는 것과 같다.

사랑이 능동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은 그것이 주는 것이라는 특징 외에도 모든 사랑의 형태에는 몇 가지 공통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그 기본적인 요소란 배려, 책임, 존경, 이해 등이다…… 사랑이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 사랑의 본질은 실제 사랑의 형태 속에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사려가 깊은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이며 배려가 깊은 것이며 이해심이 깊은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닥칠 일에도 관심을 보인다.

존경이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즉, 상대의 독특한 개성을 알아보는 능력인 것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관심을 의미한다. 따라서 존경에는 착취가 있을 수 없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성장 발달하기를 원한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됨을 느끼지만 ‘있는 그대로’의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용 대상물로서 그가 필요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 해도 그를 이상화할 필요는 없다. 그를 실제 존재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 나름의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를 이기적인 욕심의 대상물로서 다루지 않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가진 독특한 모습 그대로에 대해 느낌을 갖는 것이다.

내가 독립적일 때, 다시 말해서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 것도 지배하거나 착취하지 않으면서도 혼자서 걸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존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존경은 오직 자유의 기초 위에서만 존재한다. 프랑스의 옛 노래처럼 ‘사랑은 자유의 소산’이지 결코 지배의 소산은 아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강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결단이며 판단이며 약속이다.

▶ 내가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할 필요가 없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다. 존경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놓아둘 때만이 가능하다. 만약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의지와 다르게 살도록 강요하는 한 존경은 불가능하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선택이며 결심이며 책임이며 서약이다.

2단계 : 주제 명료화하기의 보기

1. 주제의 진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다. 지식과 기술과 통찰이 필요하다. 순수한 사랑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깊은 의무를 통해서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을 보는 이 같은 방식은 사랑에 대한 통념과 아주 다르다.

2. 주제의 상세화

사랑에 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랑은 신비스러운 것이어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사랑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약할 때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기를 바란다. 약함은 사랑을 하는 데 건전한 바탕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3. 주제에 대한 예 들기

영화나 오페라를 보면 사랑은 열정과 관련돼 있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잔인한 행위로 묘사되며 죄나 성적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시기와 질투, 다른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 등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대한 대중적 이미지이다. 오랜 기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순수한 사랑은 액션 드라마와는 다르다. 이런 점에서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묘사한 할리우드 영화는 거의 없다.

4. 주제에 대한 비유적 설명

잘못된 형태의 사랑은 식물에 기생해서 결국은 식물을 죽이는 기생식물과 같다. 기생식물이 식물을 지배해서 식물로 하여금 자신의 지배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사랑은 지배하지도, 복종하지도 않는다. 순수한 사랑은 두 식물이 나란히 자라고 햇빛과 토양을 서로 나누며 다른 식물로 하여금 독특한 개체로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수한 사랑은 서로 평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옥수수빵 여론

배경 정보 이 글은 유명한 소설가이며, 사회 비평가인 마크 트웨인의 ‘포터 블 마크 트웨인’에서 발췌하였다. 마크 트웨인이 말하는 ‘옥수수빵 여론’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에 지장을 주는 견해나 신념, 혹은 사회적 지위나 사업상 손해가 되는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나는 의상, 예절, 문학, 정치, 종교 또는 여러 다른 일들에서 우리들이 특별히 냉철하게 생각해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확신한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이슬람 교도는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서 태어나 양육되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이지 이슬람 교도가 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인이 왜 가톨릭 교인인지, 장로 교인이 왜 장로 교인인지, 침례 교인이 왜 침례 교인인지, 몰몬 교도가 왜 몰몬 교도인지, 도둑이 왜 도둑인지, 군주제 주의자가 왜 군주제주의자인지, 공화주의자가 왜 공화주의자인지, 민주주의자가 왜 민주주의자인지를 안다. 사람들은 자신이 커다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숙고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생각한다. 사람들은 글을 읽지만 반대편 주장의 글을 읽지는 않는다. 그들은 확신에 도달하지만 사태에 대한 부분적 견해로부터 도출된 것이며, 특별한 가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느끼지만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집합체를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여론이다. 여론은 존중된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 어떤 사람은 여론을 신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연습

나는 의상, 예절, 문학, 정치, 종교 또는 여러 다른 일들에서 우리들이 특별히 냉철하게 생각해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확신한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이슬람 교도는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서 태어나 양육되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이지 이슬람교도가 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인이 왜 가톨릭 교인인지, 장로 교인이 왜 장로 교인인지, 침례 교인이 왜 침례 교인인지, 몰몬 교도가 왜 몰몬 교도인지, 도둑이 왜 도둑인지, 군주제주의자가 왜 군주제 주의자인지, 공화주의자가 왜 공화주의자인지, 민주주의자가 왜 민주주의자인지를 안다.

사람들은 자신이 커다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숙고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생각한다. 사람들은 글을 읽지만 반대편 주장의 글을 읽지는 않는다. 그들은 확신에 도달하지만 사태에 대한 부분적 견해로부터 도출된 것이며, 특별한 가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느끼지만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집합체를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여론이다. 여론은 존중된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 어떤 사람은 여론을 신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보기

나는 의상, 예절, 문학, 정치, 종교 또는 여러 다른 일들에서 우리들이 특별히 냉철하게 생각해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확신한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속의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입을 옷에 관해서나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사회적 규칙, 그들이 읽으려고 선택하는 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종교적 견해,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이슬람 교도는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서 태어나 양육되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이지 이슬람 교도가 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인이 왜 가톨릭 교인인지, 장로 교인이 왜 장로 교인인지, 침례 교인이 왜 침례 교인인지, 몰몬 교도가 왜 몰몬 교도인지, 도둑이 왜 도둑인지, 군주제주의자가 왜 군주제 주의자인지, 공화주의자가 왜 공화주의자인지, 민주주의자가 왜 민주주의자인지를 안다.

▶ 사람들은 그들의 신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신념 체계 속에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이념 및 신념 체계를 갖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난 종교 속에 빠진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같은 종류의 사상의 주입이 사회, 종교, 정치, 그 밖의 체제에서도 일어난다.

사람은 커다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숙고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생각한다. 사람들은 글을 읽지만 반대편의 주장의 글을 읽지는 않는다. 그들은 확신에 도달하지만 사태에 대한 부분적 견해로부터 도출된 것이며, 특별한 가치는 없는 것이다.

▶ 사람들은 중요한 정치적 질문에 대해서 자신들이 숙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실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숙고한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관점에서 숙고한다. 그들은 자기 정당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다. 반대편의 견해에는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견해를 정한다. 하지만 보통 그 견해는 편협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느끼지만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집합체를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여론이다. 여론은 존중된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 어떤 사람은 여론을 신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

▶ 사람들은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열정에는 합리적 사고가 결핍되어 있다. 우리는 집단이 주는 공동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타당하다고 확신한다. 또한 집단의 목표와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정서적인 힘을 얻는다. 이러한 공동의 신념을 여론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우리의 집단 이념을 숭배하며 그것을 진리로 파악한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신으로부터 온 신성한 진리로 본다.

대중의 반란

배경 정보 이 글은 사상가이며 사회 비평가인 호세 오르테카 가세트가 쓴 '대중의 반란'이란 책에서 발췌하였다.

종건 나쁘건 간에 현재 유럽의 공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이것은 대중이 완전한 사회 권력을 획득하였다는 것이다. 대중이라는 정의대로라면 대중은 그들 자신의 사적인 삶을 이끌어서도 안 되고 이끌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는 사회를 지배해서도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의 사실은 실제로 유럽이 국민이나 국가 그리고 문명에 영향을 미칠 아주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는 소수와 다수라는 두 가지 구성요인이 역동적으로 통합된 것이다. 소수는 특별한 소질을 가진 개인이거나 개인의 집단이다. 대중은 특별한 자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이다. 선택된 사람이란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과 스스로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다. 대중은 다른 것, 훌륭한 것, 개인적인 것, 질이 높은 것, 선택된 것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제거될 위협에 처하게 된다.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연습

종건 나쁘건 간에 현재 유럽의 공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이것은 대중이 완전한 사회 권력을 획득하였다는 것이다.

대중이라는 정의대로라면 대중은 그들 자신의 사적인 삶을 이끌어서도 안 되고 이끌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는 사회를 지배해서도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의 사실은 실제로 유럽이 국민이나 국가 그리고 문명에 영향을 미칠 아주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는 소수와 다수라는 두 가지 구성요인이 역동적으로 통합된 것이다. 소수는 특별한 소질을 가진 개인이거나 개인의 집단이다. 대중은 특별한 자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이다.

선택된 사람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과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다.

대중은 다른 것, 훌륭한 것, 개인적인 것, 질이 높은 것, 선택된 것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제거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보기

중권 나쁘건 간에 현재 유럽의 공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이것은 대중이 완전한 사회 권력을 획득하였다는 것이다.

▶ 현재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수의 일반인이 사회의 절대적 통제권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대중이라는 정의대로라면 대중은 그들 자신의 사적인 삶을 이끌어서도 안 되고 이끌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는 사회를 지배해서도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의 사실은 실제로 유럽이 국민이나 국가 그리고 문명에 영향을 미칠 아주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중은 자신의 개인적 행위를 이끌어서는 안 되며, 문화를 이끌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지금 유럽은 상상을 넘어서는 큰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는 소수와 다수라는 두 가지 구성요인이 역동적으로 통합된 것이다. 소수는 특별한 소질을 가진 개인이거나 개인의 집단이다. 대중은 특별한 자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이다.

▶ 문화는 대체적으로 개인주의자와 순응주의자 사이의 강력한 상호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개인주의자는 언제나 특정한 기술 또는 능력을 갖는다. 반면 대규모 순응주의자는 개별적으로는 대체로 무능력하다.

선택된 사람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하찮은 일에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건방지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자신을 높은 기준으로 규제한다.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과 스스로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다.

▶ 사람을 분류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은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과 스스로에게 어떤 중요한 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대중은 다른 것, 훌륭한 것, 개인적인 것, 질이 높은 것, 선택된 것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제거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 사회는 대체로 독특하고 능력 있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또한 사회는 질적으로 높은 어떤 것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대중에 휩쓸리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나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제거될 위험에 처한다.

진정한 신자

배경 정보 이 글은 에릭 호머가 쓴 '진정한 신자' 라는 책의 서문에서 발췌했다.

모든 대중 운동은 죽기를 겁내지 않는 지지자들과 집단행동의 성향을 만들어 낸다. 그들 모두는 그들이 외치는 주장이나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과는 관련 없이 광신주의와 열광, 그리고 열렬한 소망과 증오와 불관용을 낳는다. 이 모든 것은 삶의 특정 분야에 강력한 활동을 쏟아붓게 한다. 이 모든 것은 맹목적인 확신과 일편단심의 충성을 요구한다. 비록 광신적인 기독교도, 광신적인 이슬람교도, 광신적인 민족주의자, 광신적인 공산주의자, 광신적인 나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고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들을 고무하는 광신주의이다. 그들을 팽창시키고 세계를 지배하도록 움직이는 힘은 같다. 헌신과 확신, 권력의 추구, 통일성 및 자기희생의 모든 형태에도 일정한 일치점이 있다. 신성함의 근거 및 교의의 내용은 광범한 차이가 있으나 그들을 효율적이게 하는 요소는 어떤 일치점이 있다.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는 신성한 이유가 다를지라도 그들은 어찌면 같은 것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연습

모든 대중 운동은 죽기를 겁내지 않는 지지자들과 집단행동의 성향을 만들어 낸다.

그들 모두는 그들이 외치는 주장이나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과는 관련 없이 광신주의와 열광, 그리고 열렬한 소망과 증오와 불관용을 낳는다.

이 모든 것은 삶의 특정 분야에 강력한 활동을 쏟아붓게 한다.

이 모든 것은 맹목적인 확신과 일편단심의 충성을 요구한다.

비록 광신적인 기독교도, 광신적인 이슬람교도, 광신적인 민족주의자, 광신적인 공산주의자 광신적인 나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고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들을 고무하는 광신주의이다.

그들을 팽창시키고 세계를 지배하도록 움직이는 힘은 같다.

헌신과 확신, 권력의 추구 통일성 및 자기희생의 모든 형태에도 일정한 일치점이 있다. 신성함의 근거 및 교의의 내용은 광범한 차이가 있으나 그들을 효율적이게 하는 요소는 어떤 일치점이 있다.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는 신성한 이유가 다를지라도 그들은 어쩌면 같은 것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보기

모든 대중 운동은 죽기를 겁내지 않는 지지자들과 집단행동의 성향을 만들어 낸다.

대규모 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모든 폭동은 그들의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추종자를 길러내며, 그들의 목적을 위해 결집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성향을 길러낸다.

그들 모두는 그들이 외치는 주장이나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과는 관련 없이 광신주의와 열광, 그리고 열렬한 소망과 증오와 불관용을 낳는다.

▶ 이러한 모든 폭동은 그들의 이상, 가치, 신념과 관계 없이,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바꿔 부르든지에 관계 없이, 편협성과 편벽성, 과도한 시기심, 경직성, 반대자들에 대한 혐오감 및 사물을 다른 식으로 보려하지 않는 성향을 만들어낸다.

이 모든 것은 삶의 특정 분야에 강력한 활동을 쏟아붓게 한다.

▶ 대중운동에 대한 열정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맹목적인 확신과 일편단심의 충성을 요구한다.

▶ 그 같은 운동들은 모두 독단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집단이 가진 경직된 신념을 신봉할 것을 요구한다.

비록 광신적인 기독교도, 광신적인 이슬람교도, 광신적인 민족주의자, 광신적인 공산주의자 광신적인 나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고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들을 고무하는 광신주의이다.

▶ 어떤 종교이든 그것을 광신적으로 믿는 신자들은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반대되는 신념을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과 공통점이 더 많다. 다시 말해 광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광신하는 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같다.

그들을 팽창시키고 세계를 지배하도록 움직이는 힘은 같다.

▶ 광신적인 집단은 세상의 모든 일을 통제하고자 한다. 그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고 신의 목소리를 말한다고까지 생각한다. 때문에 자신들의 신념을 세상의 모든 삶에 강요하고 싶어 한다.

헌신과 확신, 권력의 추구 통일성 및 자기희생의 모든 형태에도 일정한 일치점이 있다. 신성함의 근거 및 교의의 내용은 광범한 차이가 있으나 그들을 효율적이게 하는 요소는 어떤 일치점이 있다.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는 신성한 이유가 다를지라도 그들은 어쩌면 같은 것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 그들은 자신이 신성한 교의와 신성한 대의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광신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들 모두는 지도자가 대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한 명령은 무엇이든 맹목적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한 사실은 그들이 누구를 믿는지와는 관계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광신자는 같은 전제를 깔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그들에게 동의해야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 운동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절대적 진리라고 믿게 되면, 그들 사이에는 집단의 지배에 순응하고 대의를 위해 기꺼이 죽을 것이라는 광신이 생겨나게 된다.

교육의 개념

배경 정보 존 헨리 뉴만은 1851년에 대학교육의 범위와 본성에 대한 담론이라는 유명한 강의를 하였는데, 그의 강의 내용이 1952년에 '대학의 개념'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에는 교육에 대한 뉴만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른 명칭으로 불러야 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을 서로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 학문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여러 가지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백 가지를 아는 것이나 자세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 단지 즐기는 것, 원기를 되찾는 것, 만족하는 것, 건전한 정신과 유머를 배우는 것 또는 무절제를 막는 것 등으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교육이란 숭고한 말이다. 교육은 지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며 준비된 자에게 지식을 적절히 나눠주는 것이다. 교육은 자신의 견해와 판단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주며, 그것을 발전시키는 진리를, 그것을 표현하는 설득력을, 그것을 추진하는 힘을 준다. 교육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도록 가르치며, 핵심을 파악하는 것을, 사상의 혼란을 해결하는 것을, 복잡한 것을 간파하기 위해 관련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을 가르친다. 교육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어떻게 자신 앞에 마음 상태를 가져다놓을지, 그것의 영향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것을 어떻게 지니게 되는지를 가르친다. 사람들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고 경청할 수도 있다. 질문을 적절히 할 수 있으며 직접 나서지 않고도 적절히 배울 수 있다.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연습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른 명칭으로 불러야 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을 서로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 학문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여러 가지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백 가지를 아는 것이나 자세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교육을 단지 즐기는 것, 원기를 되찾는 것, 만족하는 것, 건전한 정신과 유머를 배우는 것 또는 무절제를 막는 것 등으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교육이란 숭고한 말이다. 교육은 지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며 준비된 자에게 지식을 적절히 나눠주는 것이다.

교육은 자신의 견해와 판단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주며 그것을 발전시키는 진리를, 그것을 표현하는 설득력을, 그것을 추진하는 힘을 준다.

교육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도록 가르치며, 핵심을 파악하는 것을, 사상의 혼란을 해결하는 것을, 복잡한 것을 간파하기 위해 관련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을 가르친다.

교육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어떻게 자신 앞에 마음 상태를 가져다놓을지, 그것의 영향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것을 어떻게 지니게 되는지를 가르친다.

사람들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고 경청할 수도 있다. 질문을 적절히 할 수 있으며 직접 나서지 않고도 적절히 배울 수 있다.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의 보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른 명칭으로 불러야 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을 서로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 내 말의 요점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낱말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다른 의미의 말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학문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여러 가지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 하나의 주제 또는 학문을 깊이 이해하고 능통하는 것과 많은 주제를 약간 아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백 가지를 아는 것이나 자세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 많은 것에 대해 조금씩 아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논제에 대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또한 넓은 관점을 갖는 것과는 다르다.

교육을 단지 즐기는 것, 원기를 되찾는 것, 만족하는 것, 건전한 정신과 유머를 배우는 것 또는 무절제를 막는 것 등으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 교육이라는 것을 향락과 여흥 또는 원기 회복, 활기를 북돋는 것 등과 혼동하지 말라. 교육과 쾌적함이나 만족을 얻는 것과는 혼동하지 말라.

교육이란 숭고한 말이다. 교육은 지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며 준비된 자에게 지식을 적절히 나눠주는 것이다.

▶ 교육은 의미심장한 개념이다. 그것을 가볍게 다루거나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이란 중요한 생각을 이해하고 배우고자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식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

교육은 자신의 견해와 판단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주며 그것을 발전시키는 진리를, 그것을 표현하는 설득력을, 그것을 추진하는 힘을 준다.

▶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가 믿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왜 믿는지에 대하여 진정으로 그리고 깊이 생각하게 된다. 교육은 자신이 믿는 바를 세련되고 멋있게 그리고 힘있게 표현하도록 해준다.

교육은 사람들에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도록 가르치며, 핵심을 파악하는 것을, 사상의 혼란을 해결하는 것을, 복잡한 것을 간파하기 위해 관련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을 가르친다.

▶ 교육은 한 상황에서 실제로 참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또한 중요하고 적절한 것에 집중하도록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교육받은 사람은 기만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의미를 함부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

교육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들여다 보는지, 어떻게 자신 앞에 마음 상태를 가져다놓을지, 그것의 영향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것을 어떻게 지니게 되는지를 가르친다.

교육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관점에 공감할 수 있게 해준다. 교육은 좋은 근거를 사용하여 자기 주장을 합리적으로 펼치도록 해준다. 교육은 합당한 관점과 주장을 고려하게 하며, 더 합당한 관점을 만나면 자신의 관점을 바꾸게 해준다. 교육은 주의 깊게 듣도록 하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파악하게 한다. 또한 교육은 참을성 없는 사람들에게 참을성을 준다.

사람들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고 경청할 수도 있다. 질문을 적절히 할 수 있으며 직접 나서지 않고도 적절히 배울 수 있다.

교육받은 사람은 주장해야 할 때와 침묵하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할 때를 구별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토론하는 방법을 안다. 그들은 훌륭한 경청자이다. 그들은 질문하고 토론을 촉진하는 데 능숙하다. 그들은 상황이나 대화에서 자신이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능숙하게 구별한다.



부록 A : 문장 바꿔 쓰기의 보기²⁾

- ↳ 덩컨 결선에서 크게 드러나다 (스포츠 신문 머리기사)
▶ 농구스타 덩컨은 농구 토너먼트 결승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 ↳ 세레나 윌리엄스 홀로서다 (스포츠 신문 머리기사)
▶ 테니스 스타 세레나 윌리엄스는 프랑스 오픈 테니스 토너먼트에서 무패를 하고 있다.
- ↳ 미국 불신 증가 (일간 신문 머리기사)
▶ 20개 국가를 설문 조사한 결과 미 정부의 동기에 대한 불신이 뚜렷이 증가하였다.
- ↳ 서두르는 사람이 진다.
▶ 재앙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할 상황도 있다.
- ↳ 제때에 한 바느질이 나머지 아홉 바늘을 구한다.
▶ 제때에 수선하거나 조절하면 큰 손실이나 손해를 피할 수 있다.
- ↳ 돈은 정치의 모유이다.
▶ 모금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면 선거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
▶ 정치에서 돈은 통제력이다.
- ↳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신약 성경)
▶ 부자는 다른 사람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는 윤리적인 삶을 살기가 불가능하다.
- ↳ 수산화나트륨과 황산을 함께 넣으면 격렬하게 반응한다.
▶ 수산화나트륨과 황산의 화학구조가 결합하면 상당한 정도의 열과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즉각 변화한다.
- ↳ 신앙과 영광이 순위표를 지배한다.
▶ 신과 종교에 관한 음악이 히트 음악 중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 ↳ 거기에 다른 지구가 있는가?
▶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다른 행성이 있는가?
2)위의 인용문은 대부분 신문기사에서 뽑은 것이다.

부록 B : 사설의 논리를 분석하기

에세이나 사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생각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생각의 표준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분석을 위한 모형이다.

1. 이 사설의 주요 목적은 _____이다.

글쓴이가 이 사설에서 의도한 바를 최대한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글쓴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2. 글쓴이가 제기하고 있는 핵심 질문은 _____이다.

글쓴이가 이 글을 썼을 때 마음속에 두었던 핵심 질문을 파악해내야 한다. 이 글이 제기하고 있는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3. 질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는 _____이다.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가정한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글쓴이가 자신의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한 사실과 경험, 그리고 자료 등을 찾아보라.

4. 이 글에 나타난 핵심 추론은 _____이다.

글쓴이가 이 글에서 이끌어내거나 보여준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5. 이 글에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은 _____이다. 그 개념의 의미는 _____.

글쓴이의 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글쓴이가 이러한 개념으로 나타내고자 한 의미는 무엇인가?

6. 글쓴이의 생각에 깔려 있는 중요한 전제는 _____이다.

문제가 될 법한데도 불구하고 글쓴이가 당연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전제란 글쓴이가 글 속에서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일반화된 것들이다. 그래서 대개 전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글쓴이의 생각은 대부분이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출발한다. 그러므로 전제를 찾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7a. 우리가 글쓴이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_____을 함축한다.

만약 사람들이 글쓴이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여기서는 글쓴이의 생각이 가진 논리적인 함축을 찾아내야 한다. 글쓴이가 얘기한 함축은 물론 얘기하지 않은 함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볼아야 한다.

7b. 우리가 글쓴이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_____을 함축한다.

사람들이 글쓴이의 추론을 무시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8. 이 글에 나타난 중요한 관점(들)은 _____이다.

글쓴이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우리는 ‘분석’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해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또한 문제나 쟁점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는 으레 생각의 8요소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위의 구조가 글쓴이의 글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글쓴이의 생각을 거의 글쓴이와 같은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위의 구조는 모든 생각이 가지고 있는 여덟 가지 기본 구조이다. 또한 그것들은 생각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부록 C : 교재의 논리

1. 이 교재의 주요 **목적**은 _____이다.
2. 이 교재에서 글쓴이가 제기하고 있는 핵심 **질문**은 _____이다.
3. 이 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_____이다.
4. 이 교재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추론**은 _____이다.
5. 이 교재에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은 _____이며, 그 개념들이 의미하는 것은 _____이다.
6. 글쓴이의 생각에 깔려 있는 주요 **전제**는 _____이다.
- 7g. 사람들이 교재의 내용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함축**하는 것은 _____이다.
- 7b. 사람들이 교재의 내용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함축**하는 것은 _____이다.
8. 이 교재에 나타난 주요 **관점**은 _____이다.

부록 D : 생태학의 논리-교재 3단계 읽기의 보기

(모든 생태학 교재를 주의 깊게 읽으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1. 생태학자들의 목적

생태학자들은 동식물이 자연과 맺고 있는 상호관련성, 상호작용, 상호의존성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동식물을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들은 동식물의 번식과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며, 서식지 안에서 그들의 생활과 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한다.

2. 생태학자들의 질문

동식물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동물끼리는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다양한 생태계는 각각 어떤 기능을 할까? 그들은 다른 생태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환경은 동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동식물들은 어떻게 나서 자라고 죽고 번식할까? 동식물들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까? 그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3. 생태학자들이 사용하는 정보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동식물과 그들의 상호작용, 그들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관찰해서 얻는다. 생태학자들은 동식물이 어떻게 나서 자라고 죽고 진화하는지, 그들이 환경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 또한 그들은 화학, 기상학, 지질학 등을 포함한 다른 학문으로부터도 정보를 얻는다.

4. 생태학자들이 만드는 판단(추론)

생태학자들은 생태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동식물은 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그들은 그렇게 작용하는지 등에 대해 판단한다. 그들은 생태계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무엇이 그러한 균형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또한 자연공동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5. 생태학자들의 생각을 이끌어주는 개념

생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생태계이며, 그것은 특정한 서식지에서 서로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 생명체 집단으로 정의된다. 생태적 전이도 중요한 개념인데, 모든 생태계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자연적 패턴이다. 이 패턴에는 자연공동체의 탄생과 성장과 죽음과 번식이 포함된다. 생태학자들은 각 공동체를 외형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생물군계라고 불리는 좀 더 큰 단위로 묶는다. 자연의 균형 역시 중요한 개념이다. 그것은 번식하고 죽고, 먹고 먹히는 자연적 과정이며, 그러한 균형을 통해 동식물이 안정적인 생태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불균형, 에너지, 영양, 수의 증가, 다양성, 서식지, 경쟁, 약탈, 기생, 적응, 진화, 극상 군락의 계승과 보존 등과 같은 핵심 개념이 있다.

6. 생태학자들의 핵심 전제

동식물 군락 안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 연구되어야 한다. 동식물은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를 조절한다. 생태계 내의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

7. 생태학이 가진 함축

생태학적 연구는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해 수많은 함축을 이끌어낸다. 예를 들어 자연의 균형에 대한 연구 덕분에 우리는 자연이 언제 균형을 잃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해충을 죽이기 위해 고안된 살충제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먹이사슬을 통해 다른 생명체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 수 있다. 무리한 경작이 어떻게 토양의 부식과 고갈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8. 생태학자의 관점

생태학자들은 동식물에 주목하며,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구실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또한 지구의 균형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참고도서

Commager, Henry Steele. 미국인의 마음(1950).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pp. 22~23.

Ortega y Gasset, Jose. 대중의 반란(1932). New York : W.W. Norton & Co., pp. 11, 13, 15, 18.

Fromm, Erich. 사랑의 기술(1956). New York : Harper and Row, pp. 1~2, 23~24, 47.

Hoffer, Erich. 진정한 신자(1956). New York : Harper and Row, p. IX.

Newman, John Henry. 대학의 정신(1912). New York : Longmans, Green, pp. 144, 148.

Thoreau, Henry David. 월든과 다른 작품들(1937). New York : Modern Library, pp. 635, 636~637, 644.

Twain, Mark. 포터블 마크 트웨인(1946). New York : The Viking Press, pp. 573, 576~578.

|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가³⁾ |

◎ '제대로 읽기'

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자신의 생각 속에 내면화하는 읽기이다.

1. 필요성

- 읽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 **지식의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2. 기본자세

-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읽어라
-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읽어라
 - 제목이나 목차, 서문을 읽으면 파악할 수 있다.
- **반성적**으로 읽어라
 -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읽어라
 -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읽어라
 - 자신의 읽기 방법이 적절한지 생각하면서 읽어라
- **중심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라
 - 생각의 8요소와 9표준을 생각하면서 읽어라
- **메모**하면서 읽어라
 - 생각의 8요소나 9표준과 관련된 부분에 표시를 하면서 읽어라
 -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을 메모하면서 읽어라

3. 전략

1단계 : 문장 바꿔 쓰기

- 중요한 문장을 자신의 말로 바꿔 쓰기

2단계 : 주제 설명하기

- 네 가지 명료화 전략에 따라 : 주제 진술, 상세화, 예 들기, 비유하기

3단계 : 내용 분석하기

- 생각의 8요소에 따라 : 목적, 질문, 정보, 추론, 개념, 전제, 함축, 관점

4단계 : 내용 평가하기

- 생각의 9표준에 따라 : 명료성, 정확성, 정밀성, 적절성, 깊이, 넓이, 논리, 중요성, 공정성

5단계 : 역할놀이

- 주인공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해 보기

“제대로 배우려면 제대로 입을 줄 알아야 한다.”

3) 역자 주 :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재구성했다.

| 고차적 사고력 교육센터(hotec) 소개 |

고차적 사고력 교육센터(Higher-Order Thinking Education Center:hotec)는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을 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합당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창의적, 배려적 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차적 사고력 교육센터는 세계적으로 비판적 사고력 교육을 이끌고 있는 리처드 폴 교수와 어린이 철학 교육을 이끌고 있는 매튜 립먼 교수와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연구 결과를 국내에 적용하고 있으며, 어린이 철학을 바탕으로 한 고차적 사고력 교육을 20년 이상 연구해온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 함께 한국 상황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고력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가정에서는 대화공동체를 구성하여 아이들의 사고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학교에서는 탐구공동체를 구성하여 아이들의 사고력을 좀더 전문적으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차적 사고력 교육은 심도 있는 토론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튼튼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논술 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고차적 사고력 교육센터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오는 고차적 사고력 교육이 본질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을 지원할 것입니다.

· 홈페이지 : www.hotec.co.kr

생각의 기술 논술의 기술 2 :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가

지은이 리처드 폴(Dr. Richard Paul), 린다 엘더(Dr. Linda Elder)
옮긴이 박진환, 김혜숙
펴낸이 이상덕
디자인 아이지미술
펴낸곳 HOTECH/고차적사고력교육센터

출판신고 제312-2005-000014호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65 대림리시온빌딩 207

Tel (02)393-0811, Fax (02)393-0812

e-mail : book@hotec.co.kr

<http://www.hotec.co.kr>

초판 1쇄 인쇄 2006년 4월 10일

초판 1쇄 발행 2006년 4월 17일

ISBN 89-957159-3-6

ISBN 89-957159-1-X (세트)

